

그레이트 타임

우리의 모든 시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7:9-10)



가족 사진: 이안이의 만 4살 생일을 축하하며

샬롬! 로고스 호프에서 신 선교사 가정 인사드립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날씨가 더욱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어느덧 올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3년도를 돌아보며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차량 보다는 특특과 이륜 오토바이들이
보통이었던 안트리라나나의 거리들



안트리라나나 항구 앞에서
이대영 선교사님과 현지 목사님과 함께



안트리라나나 시장의 풍경

저희는 11월 한 달을 마다가스카르에서 보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남동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입니다. 저희는 이 나라에 두 개의 항구를 방문하였는데 11월의 3주 정도는 안트리라나나 **Antsirananana** 또는 **Diego** 라는 북쪽에 있는 항구에 정박을 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큰 섬이어서 지역별로 지방언어 **사투리** 도 꽤 다르고 분위기와 특성도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정박했던 안트리라나나는 수도에서도 차로 40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먼 곳이고 토착종교가 강하고 개신교회가 많지 않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지역에 신실한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셨고, 믿는 이들이 교회안과 밖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올 해 마지막 단기 선교사 **3개월 STEP : Short Term Exposure Program** 들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35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승선하여 인사부의 신 선교사는 부서와 방 배치로, 패밀리 코디네이터로서 도 선교사는 ship family 를 짜는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미비아, 인도, 스위스, 인도네시아 선교사들로 구성된 로고스호프 주일 교회 사역팀



현지 가정에게 선내 투어를 하고 있는 도 선교사

로고스호프에서 열린
무슬림 출신 기독교신자들의 연합 집회

신 선교사는 이곳에서도 주일에 여러 현지 교회들에 가서 설교로 섬기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이른 아침 6:30부터 성경공부를 한 시간 먼저 하고 예배를 드리는 30-40명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통해 작은 천국을 맛 볼 수 있었습니다. 모습과 언어는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되게 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도 선교사는 배에서 있는 이벤트에 참석하여 행사를 돕는 사역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모양의 자원봉사자들은 열심히 섬기며 늘 웃으며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초대된 한국인 선교사님께서는 설교를 전하시고, 미국인 선교사님께서는 통역을 맡아서 하셨는데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도움이 정말 큼을 느꼈습니다. 저희의 다리 역할을 통해 선교사님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안트리라나에서 3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저희는 이틀간 항해를 하여 섬 동쪽 중간 정도위치한 토아마시나 **Toamasina 또는 Tamatav** 항구에 11월 16일 도착하였습니다. 토아마시나는 수도에서 차로 10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난 북쪽의 항구보다는 규모가 크고 넓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로 나가는 길이 상당히 멀어 밖에 오고 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곳은 제법 큰 도시로 선교사님들도 더 많이 계시고 사업과 일로 오신 한인들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학교와 병원 사역을 크게 하시는 조용문 선교사님의 학교와 교회를 계속해서 방문하여 사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안트리라나 항구 자원 봉사자
루암 자매와 함께 교제하며아침마다 학교 견학으로 많은 현지 학생들이
방문했던 토아마시나 항구예전에 함께 배에서 사역하던 조슬린(프랑스)
을 11여년 만에 마다가스카르에서 다시 만나며

도 선교사는 이번에 국제 오엠에서 진행하는 피플케어 코스 1 **People Care Course 1** 온라인 10주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도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을뿐만 아니라 훗날에 선교지의 현지인들을 보다 더 잘 보살피고 상담할 수 있도록 시작한 이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바라기로는 앞으로 계속 되는 코스 2와 코스 3까지 잘 수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세우고 보살피는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주안, 이안이



마다가스카르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색상의 도마뱀들



선내 가족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며

저희는 토아마시나에 거의 한달 간 머물게 되어 2박 3일 휴가를 가졌습니다. 잠시 배 밖을 나와 육상에서 잠을 자고 아이들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휴가를 다녀와서 도 선교사가 먼저 독감에 걸렸습니다. 배에 몇몇을 시작으로 시작된 독감이 도 선교사에게 옮겨 이 안이와 주안이 그리고 신 선교사에게도 퍼졌습니다. 알고 보니 마다가스카르에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서점의 고객들과 배에서 전도여행 갔던 사람들로부터 전해져 배에 계속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 독감은 코로나와 비슷한 증상으로 목과 몸살 그리고 기침까지 하며 몇 일간 고생을 하고 완전한 회복이 거의 1-2주 정도 걸립니다. 또 전염성이 강해 지금 330여명의 선교선의 선교사들이 돌아가며 계속 차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하루 속히 없어지고 완전히 모두가 회복되어 사역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이제 곧 저희를 속죄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태어나신 날을 기다리며 동역자님들의 남은 2023년도도 따뜻하고 감사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기도해주세요

1. 마다가스카르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과 성도간의 교제 가운데 뿌려진 씨앗들이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2.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3. 신선교사 가족이 영육간의 강건하고 지혜와 사랑이 충만 하도록, 주안이, 이안이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로고스호프 다음 행선지

모잠비크, 마푸투

12월 19일 ~ 1월 19일

남아공, 리처드 베이

1월 20일 ~ 2월 20일

남아공, 케베하

2월 22일 ~ 3월 19일



QR코드 링크



카카오톡 검색: '신사랑 도은혜 선교사'를 검색해주세요.